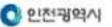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4월 19일(월) 총 3매	담 당 자 • 시민인권팀장 이창훈 ☎440-4111 • 담당자 권미정 ☎440-4123	
담당 부서 협치인권 담당관	담 당 자 • 시민인권팀장 이창훈 ☎440-4111 • 담당자 권미정 ☎440-412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1999년 인현동 화재’ 기록으로 남긴다.

- 이쁜 기억 담고 안전하고 존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 -
- ‘인현동 화재 기억사업’ 착수, 올 연말 책자와 영상 기록물 발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9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현동 화재 기억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 주재로 진행된 가운데 인현동 화재 유가족, 기억사업 관련 전문가 및 사업 수행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인현동 화재 기억사업’ (이하 기억사업)은 지역 사회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1999년 인현동 화재사건에 대해 당시의 기억과 사실을 토대로 기록물을 제작해 당시 사건을 바로 이해하고 시민의 안전과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인현동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고등학생 등 57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당한 사고이다.

본 사업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 유족 및 부상자, 목격자, 청소년 그룹별로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하고 5월부터 구술 및 영상기록은 청년세대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해 최종 12월 책자와 영상을 통한 기록물을 발간할 예정이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인현동 화재사건이 호프집 화재로 축소되고 왜곡된 기억을 재조명함으로써 지역구성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픈 기억을 유족에게 전가하지 않고 함께 공적기억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참고사진(인현동 화재 참사 기념비 “기억의 싹”)

※ 관련 사진은 17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인현동 화재 참사 기념비 “기억의 짝”>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입구

사진 출처: 흥예문 문화연구소